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사서의 목소리 내기-

A Study on the System and the Contents of Library Book-Review Journal: the Voices of Librarians

김상호(Kim, Sang-Ho)**

◁ 목 차 ▷

1. 무엇이 문제인가
1.1 건전 독서풍토
1.2 양서권장
1.3 독서진흥의 주체
2. 서평과 사서
2.1 서평의 의미
2.2 서평사서의 등장
3. 도서관서평의 성격
3.1 발행 및 비평자
3.2 서평지의 형식
3.3 서평의 유형, 표현
4. 무엇이 달라지는가
<참고문헌>

<초 록>

도서관은 독서진흥의 주체이며, 사서는 도서관의 지적 자원이다. 독서진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서관이 서평전문지를 발행해야 하며, 사서의 일부는 서평가로도 활동해야 한다. 문헌에 관한 전문가로서 사서의 목소리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꿀 것이다. 도서관서평은 다른 서평매체와 비평의 형식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하며, 기존의 도서관 서지도구와 달리 분석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한다.

요어 : 서평, 독서, 도서관, 사서

---

* 2004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6개학회공동학술세미나 주제발표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ook-review journal issued by library. The library is the most important organizing entity for encouraging reading, and the librarians are one of the intellectual sources of the library. As an effective way of encouraging reading in a community, the libraries need to publish book-review journals by utilizing their librarians as book-reviewers. Book-reviews written by appropriate librarians as professional book-reviewer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that a library provides to a specific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will change the traditional image of the library and the role of the librarian. To be sure, the library-issued book-reviews should be more analytical and critical in it contents than other bibliographic tools, and should also take an approach in its format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ones.

Keywords : Bookreview, Reading, Library, Librarian

KCI

1.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의 선행을 표창하는 기관이 국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경찰청이나 법원이 그 일을 주도한다면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서진흥 역시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을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 법률의 제정 취지나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관련 시책이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1.1 건전 독서풍토

우리나라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2002년에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발행한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해당 보고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52조 규정에 의한 독서진흥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고서에서 지식정보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독서활동을 창출하기 위해 우선되어야할 독서활성화 과제는 첫째, 어린이 시절과 청소년기에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사회전반의 독서환경조성을 위해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 셋째,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되도록 출판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참고로 당해 연도 독서진흥에 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의 주요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공간 조성 : 공공도서관 문고 확충,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청소년 독서공부방 운영

2)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활성화, 문화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도서관주간 행사,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도서관문화학교 운영

3) 국민독서생활화 운동 : 독서새물결운동, 독서의 달 사업, 독서문화상 시상, 독서교실 운영, 피서지문고 운영, 도서교환시장 운영,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독서대학 및 독서회 운영, 독서문화행사 개최, 취미교양교실 운영, 독서

문화지도사과정 교육, 도서상품권 보급

4) 건전 독서풍토 조성 : 우수도서 선정 보급, 불법 불량출판물 추방운동 전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및 심사처리 현황, 2002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5)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 도서관협력망 구성 운영,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

6) 국제교류협력 강화 : 자료의 교환, 도서관자료의 국제적 이용,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운영,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연수

이와 같은 항목의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위의 세 가지 독서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 가지 정책당국에서 '독서'라는 단어를 수용함에 있어 오해가 있고, 그것이 독서 생활화 시책을 주관하는 기관의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건전 독서풍토의 조성'이란 항목은 독서활성화 과제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되도록 출판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연관된 활동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하는 독서진흥시책 관련 보고서에서 단지 잘못 사용된 '독서'라는 단어로 인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한 항목을 중간에 삽입한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건전 독서풍토'란 '독자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말한다. 물론 그런 여건 가운데에는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해당 항목의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보면 '건전 독서풍토'라는 것은 '건전 도서발행(출판) 풍토'에 다름 아니다. '도서발행(출판)'과 '독서'의 의미는 같지 않다. 출판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문제에 불필요한 오해와 오류를 생기게 하고 있다.

1.2 양서권장

'건전 독서풍토 조성'을 위한 실천사항 가운데 '우수도서 선정 보급 사업은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 보급, 이 달의 청소년도서 선정 보급,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이 달의 읽을만한 책 추천, 청소년 권장도서 추천 및 목록집 제작, 계

간 서평문화 발간, 월간 간행물윤리 발간, 월간 해외문화산업 발간, 청소년 권장도서 코너 설치 등을 포함한다. 다수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주관 사업이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규정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주 기능은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이다. 부가적으로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양서권장'의 의미라는 것이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독자에 대해 양서의 독서를 권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출판사에 대해 양서의 출판을 권장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전자의 성격이 강하다.

분기별로 6,500부를 발간하여 학교, 도서관, 독서관련단체, 한국학연구기관 등에 배포하는 서평전문지는 양서 출판의 권장과 양서 독서의 권장 가운데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문헌정보학계보다는 신문방송학계에 우선적으로 배포된 사실은 출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서 해당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추천 단체 또는 협회는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 단체 및 협회, 언론, 외국학 또는 외국어, 정기간행물의 제작 비평, 도서류의 창작 제작 유통 및 비평, 교육, 청소년, 여성, 종교 및 소비자 등 관련 단체 및 협회,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그 밖의 영상 광고 등 문화예술관련 기관 단체 및 협회이다. 여기에 도서관 및 독서관련 단체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독서진흥은 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기획관리부 홍보기획팀의 활동을 살펴보면 양서권장, 간행물 발행, 조사연구 등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양서권장은 '이 달의 읽을 만한 책'과 청소년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청소년 독서강연회를 진행하고, 간행물윤리상을 시상하고, 위원회 추천도서 판매코너를 설치하는

것이며, 간행물 발행은 월간 간행물윤리, 계간 서평문화, 반년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목록집, 연간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목록집 등을 발행하는 것이며, 조사연구는 위원회가 추천한 도서 중에서 청소년 독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독서지도용 교사요목으로 발간하는 일이다. 대부분이 독서와 관련된 활동이다.

이러한 혼란은 근본적으로 용어의 사용과 해석, 수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양서의 독서를 위해 적극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일반인이나 학생들의 독서를 돕기 위한 도서의 평가, 양서의 선정, 추천도서목록의 작성, 서평 및 목록집의 발간과 같은 일에 어떠한 관심이나 계획이 있고, 책임이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3 독서진흥의 주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독서진흥에 관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자료의 공중에의 이용, 각종 서지의 작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도서관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독서회 등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도서관은 독서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특별히 국립중앙도서관에 부여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에는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 독서운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 장애인을 위한 독서활동,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등 사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수집, 자료조직, 도서관협력활동, 도서관정보화, 학위논문관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납본주보, 납본월보,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도서관, 도서관계, 국립중앙도서관연보, 학술논저총합색인, 장서목록 등의 서지를 발간하기도 한다. 모두가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 출판 인쇄문화산업의 지원 육성, 간행물의 심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정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산업 진흥시책과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시책은 그 취지와 목적, 범위, 방법론이 같지 않다. 독서진흥은 도서관에 있어 목적이지만 출판인쇄소에 있어서는 수단에 불과하다.

비행 청소년을 계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선행 청소년을 찾아 표창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해서 해당 기관에 자제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유해 간행물을 심의하고 불법 불량 간행물을 단속하는 것으로 충분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 문제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원칙을 무시하고 관례만 따를 것인가.

2. 서평과 사서

도서관밖에는 책이 넘쳐난다. 문헌이 범람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십, 수백만 권의 책을 서가에 정연하게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은 수도원처럼 적막하다. 거기에는 애써 숨을 죽이고 있는 이용자와 표정뿐인 사서가 있다.

독자와 저작자 사이에서 서평의 기능은 이용자와 장서 사이에서 책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추천하는 사서의 기능과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평의 이용에 익숙한 도서관 사서라고 하더라도 서평의 작성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는 사서가 단지 도서관 안의 서평자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책이 저술되고 출판되고 읽혀져야 하는지 그들만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으로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가.

2.1 서평의 의미

서평의 정의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서 서평은 도서를 비평하여 평가하는 것, 주로 신문이나 잡

지, 방송으로 하고, 특정한 한 저작만을 비평하기도 하지만 내용이 유사하거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나 동일 저자의 일련의 저작을 그 대상으로 하고, 특정 분야에 관한 일정기간의 출판물을 총망라해서 해설하는 평론도 그 일종인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역시 도협에서 발행한 「도서관정보관리편람」에는 서평의 성격과 종류, 기능이 잘 정리되어 있다. 요약하면 서평(리뷰)은 참고도서, 서지, 목록, 색인, 초록 등과 같은 이차자료이고, 일반적으로 일차자료를 가공, 재편성하여 작성한 이차자료가 독창성이 없는 반면, 서평은 상당한 지적 작업으로 평자 대부분은 학자나 숙련된 전문가로서 그 권위가 인정되며, 서평은 내용에 따라 비판적 리뷰, 기술적 리뷰, 독자층에 따라 학술적 리뷰, 저널리즘적 리뷰로 구분되며, 최신정보주지와 교육, 서지의 기능을 하는 서평은 일반 독자에게는 독서의 길잡이로, 도서관에서는 자료선택 시 보조도구로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독서문화의 향상에 유익하게 활용되며, 도서관은 기존의 서평을 이용하는 한편 직접 서평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독서와 관련한 서평의 실질적인 기능은 2002년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도서입수형태/도서정보원 가운데 신문 잡지의 책소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서별로 구분하여 보면 문학도서 12.9%, 교양도서 9.8%, 실용취미도서 7.0%이다. 전체적으로 '서점에서 직접 책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문화일보의 2002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서평에 대한 의존도는 성인 13.6%, 대학생 5.7%, 중고생 3.0%이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서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선호하는 매체가 성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2.2 서평사서의 등장

지식정보화 사회의 원동력으로서 도서관이 일컬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사서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각종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이다. 장서 없이 사서만 존재하는 도서관은 가능한가. 사서를 장서와 같은 지식정보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오늘날 사서의 전문성 여부보다는 사서의 분야별 전문화를 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관종별, 유형별로 세분된 분야에서 전문화된 사서가 필요하다. 서평을 쓰는 사서는 어떠한가.

신문, 학술지, 서평전문지와 같은 서평매체에서 서평자는 주로 교수, 기자, 평론가 그룹이다. 그들의 전공과 관심사는 같지 않다. 굳이 공통점이 있다면 글을 쓰고, 글을 쓰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서평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좋은 문장력, 주제 분야에 관한 권위 있는 지식, 공정한 비평의식, 문헌에 관한 폭넓은 지식, 독자와 저자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과연 그들은 그런 자격을 고루 갖추었는가.

주제 분야에 관한 권위 있는 지식을 가진 학자 가운데 석학이나 원로학자가 서평을 하는 일은 많지 않다. 과거와 달리 학술지의 서평지면은 대부분 소장학자가 채운다. 그들은 단지 일회성의 서평자에 불과하다. 서평자로서의 사명감, 전문가정신, 직업윤리의식이 결여된 초보자의 비평은 가치의 혼돈을 야기하고, 지면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신문서평은 대개 전담 기자들이 작성한다. 기자의 주제 전문성 결여, 신문매체의 속보성으로 인해 신문서평의 질적 수준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매주 쌓이는 서평용 증정본을 처리하고, 증대된 서평지면을 채우기에는 전담 기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서평 전담 기자는 서평 전문 기자와 의미 상 차이가 있다. 전담 기자는 단지 저널리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평의 일을 경험할 뿐이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서평이 일반인의 독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것보다 크다.

서평전문지의 사정 또한 학술지나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 등장

한 인터넷 서평은 아직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 198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서평의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진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도서관 사서는 서평자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사서는 독자의 수준과 요구를 잘 이해하며,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자유롭다. 그들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봉사정신, 사명감,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헌과 주제 분야에 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축적한다. 그들이 서평자로서 부족한 것은 문장력이다. 사서는 공무상 글 쓰기를 하지 않는다.

사서는 서평의 방법론에 관한 지식을 통해 책에 관한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판단력을 키우게 된다. 이미 오래전에 외국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지역사회의 신문, 방송을 통해 서평자로서 활동하였다.

지금 우리의 사서들은 도서관의 정숙한 분위기에 익숙한 나머지 그들에게 주어진 서평의 일을 방치하고 있다. 어쩌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서평의 일은 그들에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에는 굳이 사서들이 서평의 일을 하지 않아도 서평이 넘쳐난다.

하지만 전문직이라면 전문영역에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지식의 창출과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사서는 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모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서가 유능한 서평자가 될 수는 없지만, 수천 명의 사서 가운데 몇 십 명은 서평사서로 활동하고, 그 가운데 몇몇은 저명한 지식인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는 사서의 사회적 책무가 한 쪽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도서관서평의 성격

서평전문지 「서평문화」는 그 창간호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출판계와

독서계에 양서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비판 문화의 창달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그간 일관되게 발행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다만 적합성을 떠나 독서계에 양서를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다.

존재의 가치로만 정당화할 수 있는 기능이나 활동은 한계가 있다. 독서를 위한 서평전문지의 책무와 기대가 「서평문화」에 있지 않으며, 그간 일반인의 독서생활에 더욱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출판저널」에 있지도 않다. 출판계 발행의 서평전문지는 영리성으로 인해 독서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없지 않다.

도서관 사서가 대중 서평매체를 통해 서평자로 활동하는 것, 그리고 도서관 내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평자로 기능하는 것은 개별적이다. 「서평문화」나 「출판저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계가 서평전문지를 발행하는 일은 그 맡은 바 독서진흥의 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양식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발행 및 비평자

도서관서평의 발행 주체는 도서관이며, 비평의 주체는 사서이다. 물론 도서관 밖의 서평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1) 국립중앙도서관이 독서진흥의 목적에서 서평지를 발행해야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독서진흥의 일차적인 주체는 국립중앙도서관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은 유관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납본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심의기관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작성한 '이 달의 신간정보'를 안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계에서 발행하는 전국 규모의 서평전문지 발행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독서진흥을 위한 항목의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기구이다. 협회와 같이 특정 이익을 위한 단체는 적합하지 않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그 이차적인 주체, 또는 지역이나 주제별로 한정된 관심사를 다루는 또 다른 서평전문지의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사서가 비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서평의 기획과 편집, 서평대상도서 및 서평자의 선정, 비평기사의 작성은 서평사서가 주도해야 한다. 특별한 목적이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서가 아닌 학자나 전문직 종사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서가 비평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평사서의 비평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서평사서의 등장을 위해 사서집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비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대중 서평매체 및 도서관계의 저널을 통해 서평자로서 사서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3) 유능한 비평가, 중견학자의 참여 공간을 마련한다.

도서관서평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분야의 중견학자, 대중적이고 권위 있는 비평가가 자문위원이나 객원 서평가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은 공정한 서평가로서 누구보다 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을 이해하고, 서평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의 일을 명예롭게 생각할 인물이어야 한다. 지식인들의 자긍심을 위해 도서관계가 앞장서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3.2 서평지의 형식

도서관서평의 간행빈도나 내용, 매체의 유형은 독서의 촉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다양한 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1) 월간지로 발행되어야 한다.

독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서평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간이나 격월간은 속보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간이나 반월간은 양질의 비평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품격 있고 알찬 비평잡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형식상으로도 일관성 있고, 깔끔하게 편집할 필요가 있다.

2) 순수 비평지여야 한다.

도서관서평은 기관지나 뉴스레터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인사말이나, 소식, 광고 등을 배제하고, 본문의 지면을 모두 비평기사로 채우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독자의 서평, 독후감 등으로 지면을 꾸미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권위 있는 서평지로서 적절치 않다. 굳이 필요하면 자매지, 별책, 특별호의 형식이 있다.

3)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서평은 소장가치를 지닌 도서로서 형태적으로도 우수하게 인쇄하고 제책하여 도서관이나 학교,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학자, 학생,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염가로 배포하는 한편,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열람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3 서평의 유형, 표현

도서관서평에 게재되는 서평 하나하나는 서평사서 개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결과이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서평매체의 그것과는 전체적으로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1) 기술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서평이어야 한다.

도서관 저작물은 기술적이기 쉽다. 기술적인 작업은 그것이 장기 기획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지적인 활동의 결과로 평가받기 어렵다. 도서관서평이 색인이나 초록, 목록류와 같이 서지정보의 제공과 내용의 단순한 소개에 그친다면 그 존재는 곧 잊혀지고 말 것이다.

비판적이라는 것은 서평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평대상 문헌의 가치를 객관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서평사서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책임을 지고, 기꺼이 누구와도 논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2) 일괄 서평, 종합 서평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단일 저작에 대한 개별 서평도 중요하나, 도서관서평은 체계서지학적 관점에서 특정한 논제, 사건, 인물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한 데 비평하는 일괄 서평, 종합 서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그것은 문헌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지닌 서평사서의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비평의 형식이며, 여러 가지 유용한 서지도구를 자연스럽게 축적하는 길이다.

3) 문헌적 가치, 관련 저작물의 정보제공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서평의 비평기사가 일반 신문이나 잡지, 출판계 발행의 서평매체와 차별화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첫째, 서평대상 문헌이 기존의 문헌과 어떤 차별성, 독창성, 문헌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둘째, 서평대상 문헌과 관련해 참고의 가치가 있는 저작물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관심과 지면을 할애하는 일이다.

4) 모든 주제, 유형, 국가, 지역, 시대의 문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서평은 도서관의 포괄적인 장서구성에 걸맞게 국내 신간뿐만 아니라 해외 신간서, 국내외 고전 또한 비평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일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물론,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제를 개발하고, 학술서와 교양서는 물론 아동도서, 잡지, 만화, 정부간행물, 전자도서 등을 대상으로 비평기사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4.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서가 문헌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간의 문헌을 비평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도서관이 학자와 시민, 학생의 독서생활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서평전문지를 발행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일단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다. 하지만 독자의 도서선택을 돕기 위해 양서를 선정하고, 추천도서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밖에 예상되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저작자와 출판사, 편집인들은 그들의 저작물이 무엇보다 도서관서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 동안 출판계, 서평계에서 도서관 사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도서관 사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역량은 도서관과 독서계뿐만 아니라 출판계, 언론계로 확대되고, 서평사서는 하나의 저작자그룹을 형성할 것이다. 문헌에 관한 전문직의 사회적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사서직에 대한 개념이 장서의 관리자, 봉사자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지식인으로 바뀔 것이다. 과연 도서관 사서는 장서와 더불어 주요한 도서관의 자원인가.

넷째, 사서가 일하는 도서관은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에서 미래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대용의 이차적 저작물이 아닌 일차적 저작물을 얼마나 생산하는가.

다섯째, 지식인들이 도서관의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을 구심점으로 활발한 학술 및 저술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도서관은 지식인

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차별화된 공간과 서비스,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가.

여섯째, 인쇄 및 전파매체에서 사서,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서평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자, 리포터, 제작자로 참여하고, 유능한 소수의 서평사서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몇몇은 저명한 지식인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서는 언제까지 조용해야 하는가.

일곱째, 독서가 취미인 학생뿐만 아니라, 저술가나 저널리스트가 되려는 학생들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여러 분야에서 문헌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하고자 할 것이다. 문헌전문직은 존재하는가.

잠재력만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도서관 서평은 큰 일이 아니고, 유별난 일도 아니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몇 사람의 사서가 모이면 되는 일이다. 자기 인식의 전환 없이 다른 사람의 인식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참고문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김상호. 「문헌비평론」. 대구: 태일사, 2003.

문화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2002.

문화관광부. 「2002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http://www.mct.go.kr/)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4.

Haines, Helen E. Living with Books.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Stein, M. L., 유재천 주해. How To Be A Journalist. 서울: 범한서적, 1981.